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뇌 자체에서 이성의 생각과 각종 불의한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뇌는 그 면으로는 굳어서 발달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뇌를 선한 생각으로 다 쓰면 100% 선만 생산하는 뇌 공장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소중한 인생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과 보낸 자를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선한 세계를 창조해 주시고,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을 더 깊은 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뇌를 창조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승의 애타는 몸부림의 절식기도를 통하여 귀한 휴거역사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이성타락, 불의한 행위, 자위행위,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하늘의 신부가 되어 참된 사랑, 합당한 사랑, 성자와 영적 사랑을 깊이 하는 차원높은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음식도, 운동도, 어떤 일도 70일 이상 반복해서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체질이 변화되듯이 우리의 뇌체질도 날마다 귀한 말씀을 듣고, 성자와 깊은 대화의 기도 사랑으로 계획적으로 꾸준히 행하여 생각의 축복을 받고 주의 뜻대로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뇌 체질을 좋게 바꿔서 100배, 1000배 편하고 만사에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선생님의 온전하신 삶을 본받아 저희들도 성자와 대화체질로 만들고, 성자와 사랑체질로 만들고, 말씀체질로 만들고, 실천체질로 만들어 생각도 하기 전에 손발이 먼저 가서 행하는 실천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진정 원합니다.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 기도드림으로 성자 주님께서 마음껏 사랑으로 대화해 주실 수 있도록 삶의 기도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지 않도록 선생님처럼 매일 꾸준히 운동하고 단련하고 연단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은 해도 온전히 못 하고, 10배, 100배 힘들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체질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습관과 나의 스타일로 굳어진 육적인 체질을 새시대 스타일, 주님 체질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성령의 불에 녹아지게 하시며, 삶의 모든 생각과 체질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합당하게 부활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체질개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선에서 200선 휴거로 가는 길은 자기 교정이라 하셨사오니 아직까지 교정되지 못 한 모든 것들이 확실하고 온전하게 교정되어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수 있는 신부의 삶으로 살겠사오니 더 붙잡아 주시고, 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체질이 되듯, 뇌도 몸도 마음도 체질이 되면 100선, 200선, 300선의 휴거를 거뜰히 이루어 휴거되는 것이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듯이 거뜰하고, 여름에 팔빙수 한 그릇을 먹듯이 간단하다 하셨사오니 부지런한 체질로 만들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과거에 하던 낮은 차원의 행동을 즉시 버리고 뇌의 차원을 높여 이 땅에서의 최고 축복인 휴거를 중심으로 인생을 더욱 더 크고, 높이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신의 작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와 몸과 마음을 영육으로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에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꿈속에서 고대광실 궁궐을 짓는 것보다 현실에서 개집 하나라도 확실하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신 잠언처럼 우리도 배워서, 관념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으로 모으고 헤쳐서 월명동 자연성전과 같이, 새롭게 건축된 성자 사랑의 집과 같이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성약의 천국 역사를 앞으로 수없이 많이 물려올 10만의 생명과 같이 더 높이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서는 월명동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직접 가서 사용하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보람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자의 기쁨과 수고한 자의 보람이 그렇게 크기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만들 때의 그 기쁨과 수고한 기쁨을 삶 속에서 마치 저금해 놓은 통장을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니셨고, 또한 오랜 동안 간절히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얻었기에 그렇게 감사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에서 머물러 그 차원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수고하고 애써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땀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깊이 파서 숨기어진 말씀의 보화,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여 선생님을 모시고 더 찬란하게 더 웅장하게 더 신비하게 더 아름답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진정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을 주시고, 두 증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